

강진군, 으뜸한우 경진대회 출품축 선발 돌입

무안군, 장기요양인의 날 행사 성료

강진군이 올해 20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으뜸한우 경진대회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강진완도축협과 함께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강진군을 대표할 우수 출품축 선발을 위한 준비에 본격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으뜸한우 경진대회는 우수 혈통의 한우를 발굴·육성하고 개량 성과를 평가·확산해 우량암소 개량과 고급육 생산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표 축산행사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올해 대회는 오는 9월 10일 강진완도축협 가축시장에서 개최 예정이며, 강진군과 농업전남본부가 공동 주최·주관한다. 우량한우 선발대회와 고급육 품평회를 통해 총 154두가 출품될 예정이다. 우량한우 부문은 암송아지, 미경산우, 번식암소 1·2·3부 등으로 나뉘어 심사가 진행된다. 종합평가에는 비육한우 우수축과 함께 우수 시·군 및 우수 축협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으뜸한우 경진대회이자, '탄소중립에 관한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한우법) 시행 이후 열리는 첫 경진대회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역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량암소 개량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강진군과 강진완도축협은 지난 1일 강진완도축협 조합장, (사)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 강진군 축산과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대회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행사 운영계획과 출품축 선발방안, 기관별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했다./전용재 기자



한우 농가방문 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은 지난 4일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안군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김경남) 주관으로 내외빈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장기요양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 제정됨에 따라 무안군 장기요양인의 날(매년 7월 1일)을 기념해 마련됐다.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과 무안군의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요양서비스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무안군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김경남 회장은 “재가장기요양서비스는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더 나은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용운 기자

강성희 목포시장, 침수우려지역 현장점검



강성희 목포시장이 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목포 시청 제공

민선 9기 강성희 목포시장이 지난 주말, 장마철과 7월 4일부터 6일까지 예보된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우려지역과 자연재해위험개천지구를 직접 찾아 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폭염)에 대비해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침수취약지역과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국지성 집중호우에 취약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사전 예방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4일 강성희 시장은 김원이 국회의원과 함께 과거 침수피해 현황과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갑자옥 모자전 일원과 목포 내항 주변을 찾아 배수시설과 시설물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또한 기상특보 발효 시 비상대응약지역과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국지성 집중호우에 취약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박성태 기자

“감염병 차단 총력”...함평군, 장마철 취약지 집중 방역

전남광주 통합군이 모기 등 위생해충 활동이 급증하는 장마철을 앞두고 대대적인 방역 활동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지난 6일부터 31일까지 위생 해충 번식지와 인구 밀집지역인 숲·하천, 관광지 등 약 200여 개소를 중심으로 방역소독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역 활동은 모기, 파리 등

여름 장마 이후 급증하는 해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소는 숲과 하천 인근, 인구 밀집 지역 등 해충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분무·연무 방역소독을 주 5회, 각 면사무소는 주 2회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7일부터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개장으로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놀이

장 인근과 읍 시가지 등 방문객 이동 동선에 걸쳐 방역소독을 당초 주 1회에서 주 3회로 강화한다.

군은 이번 방역 활동을 통해 장마가 끝난 후 급증하는 해충을 초기 단계부터 억제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감염병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사계 인문학교‘여름’운영

영암군이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도갑사 템플스테이에서 체류형 인문프로그램 ‘영암 사계 인문학교 여름’을 운영한다.

영암 사계 인문학교는 지역의 역사와 자연, 문화자원을 활용해 계절별로 운영하는 체류형 인문교육 프로그램이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수확하

고, 겨울에는 숙성한다’는 주제로 참가자들이 영암의 인문자원을 체험하며 삶과 공동체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난 5월 까리타스 생태농원에서 열린 ‘봄’ 과정에 이어 이번 ‘여름’ 과정은 천년고찰 도갑사와 월출산을 무대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사찰의 일상을 경험

하고, 월출산의 자연과 산사가 품은 역사·문화를 함께 체험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프로그램은 사찰 예절과 도갑사 해설, 염주 만들기, 저녁 예불과 산사 산책을 비롯해 새벽 예불, 108배와 명상, 스님과의 차담, 월출산 산책 등으로 구성됐다.

/이문수 기자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간담회 개최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지난 5일 안좌 스마트팜솔라시티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주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안군은 그동안의 성과로 지역 내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기본소득 사용처(가맹점)도 시행 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며, 기본소득 시행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6월말 기준) 총지급액 354억 원 중 313억 원 소비(사용률 88%) **가맹점 1,151개소*26.1. → 1,292개소*26.6.. /박성태 기자

